

부모의 사교육비 및 감독·애정, 자녀의 학습가치와 자기조절학습능력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중학생의 성별 비교를 중심으로

임양미*¹⁾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조교수*

The effects of private tutoring expenses, parents' monitoring · affection, their children's learning value and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ies on middle-school boys' and girls' academic achievement

Lim, Yang-Mi*¹⁾

*Assistant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Jeonju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effects of private tutoring expenses, parents' monitoring · affection, their children's learning value and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ies on middle-school boys' and girls' English · Math academic achievement. The subjects were the 3rd middle-school 1,123 students taking the private tutoring of English and Math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 Child Youth Panel Surveys(KCYPS). Th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s and hierarchical regression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ly, regardless of middle-school students' sex, as monthly average private tutoring expenses were more, the levels of parents' monitoring, and their children's learning value ·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ies were higher, so middle-school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was higher. Secondly, regardless of middle-school students' sex, their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ies were the highest predictors of English · Math achievement. Also, their learning value and parents' monitoring influenced middle-school boys' English · Math achievement in order. On the other hand, monthly average private tutoring expenses influenced middle-school girls' English · Math achievement. Furthermore there were no moderating effects of parents' monitoring · affection, their children's learning value and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ies between monthly average private tutoring expenses and middle-school boys' and girls' English · Math achievement.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the

1) 교신저자: Lim, Yang-Mi, 303 Cheonjam-ro, Wansan-gu, Jeonju, Jeonju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Tel: 063-220-2338, Fax: 063-220-2053, E-mail: ym68@jj.ac.kr

importance of parents and Home Economics was suggested in attaining middle-school students' higher academic achievement. Especially, Home Economics can play an important role of enhancing middle-school students'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ies and learning value necessary for middle-school students' higher academic achievement.

Key words: 학업성취도(academic achievement), 사교육비(private tutoring expenses), 감독(monitaring), 애정(affection), 학습가치(learning value), 자기조절학습능력(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I. 서론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규모는 세계적 수준으로, 학부모의 높은 사교육 의존도와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교육은 공교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의미한다(Naver Wikipedia, 2014). 따라서 사교육비는 학부모가 교육을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 중 공공 교육기관 밖에 지출되는 비용, 예를 들어 학원비, 과외비 등으로 구성된다.

2013년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18조 6천억으로(Ministry of Education, 2014), GDP 대비 사교육비는 OECD 평균에 세 배가 넘는 수준이며 매년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Yonhap News, 2013). 학부모의 사교육비에 대한 높은 부담은 ‘에듀퓨어’라는 계층을 창출할 만큼 심각한데, 자녀들의 사교육비를 감당하느라 부채에 허덕이는 ‘에듀퓨어’에 해당되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13%인 82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Joongboo Daily News, 2013). 최근 중앙정부는 이러한 사교육의 과열화 현상을 저지하고자 공교육의 선행학습을 규제하는 「선행학습금지법」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선행학습에 대한 광고만을 금지하였을 뿐 실질적인 수업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로 「선행학습금지법」이 오히려 사교육을 더 조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Kookje News, 2014).

사교육의 가열화 현상은 학벌주의 및 교육을 사회적 성

공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학부모의 왜곡된 가치관과 관련된다(Song et al., 2010). 과거 사교육은 학습이 부진한 학생에게 학교수업을 보충·반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수하고 능력이 있는 학생에게는 심화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고려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존의 보충·심화학습의 의미보다는 진학을 위한 학습지도 및 선행학습의 의미로 사교육의 의미가 부각되고 있다. 최근 수행된 Ministry of Education(2014)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의 68.8%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중학생이 26만 7천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사교육은 주로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주요 교과목인 수학(45.8%)과 영어(44.0%)에 집중되어 이루어지고 있었다.

우리나라 학부모는 사교육에 많은 비용을 투자함으로써 자녀의 성적상승을 기대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이 사교육비와 자녀의 학업성취도 간의 관련성을 규명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져 왔으나, 연구결과들은 일관되지 않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Kim(2003)은 부모의 사교육 지출이 자녀의 학업성취도를 높인다고 보고한 반면 사교육 지출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Hahn, Sung, & Gil, 2001), 오히려 학업성취도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제시한 연구(Kim, 2005)도 있다. 이와 같이 사교육비 지출과 학업성적 간의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를 통해 사교육만으로 높은 학업성취도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학습자의 개인내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이 사교육과 함께 고려할 때, 학업성취도를 설명하는 정도가 높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사교육의 영향을 부모의 양육방식 등의 환경요인과 자녀의 학습가치 및 자기조절

학습능력 등의 학습과 관련된 내적변인을 함께 고려하여 탐색한 연구들(Do, Kim, Kim, & Son, 2012; Jin & Kim, 2010; Kim & Lee, 2011; Lim & Chung, 2013; Shin, Hwang, & Seo, 2010)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부모 및 교사변인 등의 환경요인과 자녀의 학습관련 내적 변인 및 사교육비 지출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탐색하고 있다.

한편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사교육비, 학습자의 개인내적 변인 및 환경적 변인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몇몇 연구를 통해 제기되고 있다. Shin 등(2010) 및 Kim(2007)에 의하면 부모의 사교육비 지출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환경적 요인과 학습자 요인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 즉, 부모의 사교육을 통한 경제적 지원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애정, 자녀의 올바른 학습가치, 자아통제력 및 자아존중감 등이 수반된 상황에서 증가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사교육의 효과가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과 자녀의 올바른 학습가치가 수반될 때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함으로써 사교육 맹신주의가 팽배한 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부모의 사교육비, 부모의 양육방식, 자녀의 학습관련 변인을 함께 고려하여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독립적·복합적 영향력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며 자녀의 학업성취도 역시 수학적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전체 학급 등수를 측정함으로써 영어와 수학 과목에 집중된 사교육 현실을 반영하여 이러한 과목에 대한 부모의 사교육비 지출정도, 부모의 양육방식, 자녀의 학습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한편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부모의 사교육비 지출 및 양육방식, 자녀의 학습관련 변인의 영향력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부모는 일정한 가구소득 내 자녀에게 교육적 투자를 할 경우 가장 효율성이 높은 방식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남성에게 유리한 직업구조 및 임금체계를 가진 경우 아들에게 교육적 투자를 많이 할 가능성이 있

다. 반면 성 평등적 가치관을 가진 부모는 여아에게 교육적 투자를 통해 학업성취도를 격려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몇몇 연구들(Kim, 2007; Kim & Lee, 2006)을 통해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사교육비 수준 및 양육방식, 자녀의 학습관련 변인 등의 영향력이 탐색되었으나 그 결과는 일관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Kim과 Lee(2006), Kim(2007)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남녀 청소년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는데 부모의 관심 및 대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청소년의 자긍심, 가족소득 및 부모의 교육수준, 사교육비 수준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선행연구의 동향을 종합해 보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부모의 사교육비 및 양육방식, 자녀의 학습관련 내적변인의 영향력을 자녀의 성별에 따라 비교·분석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 시사된다. 이러한 필요성을 토대로 본 연구는 다른 학교급에 비해 사교육비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제시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에 대한 사교육비 수준, 부모의 양육방식, 자녀의 학습관련 내적변인의 독립적·복합적 영향력을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선정한 독립변인이 남녀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주효과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부모의 사교육비의 영향에 있어 부모의 애정 및 감독, 자녀의 학습가치 및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은 과목이 수학과 영어라는 현실을 고려하여 수학과 영어 사교육 경험이 있는 중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며, 학업성취도 역시 수학 및 영어과목으로 제한하되, 선행연구들(Lee, 2012; Park & Kim, 2003; Shin, Shin, & Kwon, 2004; Yang & Lee, 2012)을 토대로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방식으로 제시된 애정 및 감독, 학습자 변인으로 학습가치와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선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선정한 독립변인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명확하게 규명하고자 선행연구들(Kim, 2007; Kim & Lee, 2006; Phang & Kim, 2002)을 통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된 가족의 소득 및 부모의 학력

을 통계변인으로 지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사교육비 및 감독·애정, 중학생의 학습가치 및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영어·수학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사교육비 및 감독·애정, 중학생의 학습가치 및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영어·수학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관련문헌 고찰

1. 국내·외 사교육 현황

최근 Ministry of Education(2014)에서 수행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2013년 사교육비의 총 규모는 18조 6천억원이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3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1.2% 정도 증가하였다. 특히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중학생이 26만 7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각각 23만 2천원과 22만 3천원으로 조사되었다. 과목별 사교육 참여율을 알아본 결과 수학과 영어가 각각 45.8%, 44.0%로 다른 과목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으며 주로 학원을 활용하는 경우가 41.6%로 가장 많았다. 한편 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 3천원, 남학생의 경우 23만 5천원이며 사교육 참여율 역시 여학생이 69.3%, 남학생이 68.4%로 유사한 수준이었다(Ministry of Education, 2014).

사교육 문제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41개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수학·과학 성취도 동향조사(The trends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TIMSS)에 의하면 전체 중학생 중 37.6%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교육 참여율이 40%가 넘는 국가는

필리핀, 일본, 홍콩,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체코, 러시아 등 동유럽 국가들로 아시아 국가와 일부 개발도상 국가들에서 사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사교육의 역할은 한국, 루마니아, 태국의 경우 교육경쟁에서 이점을 얻고자 하는 기능이 두드러진 반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성적부진 학생들의 보충 학습 기능이 우세하였다(Kim, 2007).

2. 자녀 학업성취도에 대한 사교육의 효과

사교육과 관련된 오래된 쟁점은 사교육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기여하는지 그 여부에 관한 것이다. 사교육은 다음과 같은 교육적 조건을 가진 사회에서 활성화된다. 우선 고등교육 진학이 공식적인 시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경우 사교육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개인의 자질과 노력에 의해 계층이동이 결정되는 사회일 경우 사교육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교육적 성공이 사회적 성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회일수록 공교육 이외의 교육적 투자를 통한 사회적 성공을 도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교육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Kim, 2007). 이러한 교육조건을 가진 대표적인 국가로 한국 및 일본, 대만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사교육이 활성화된 국가의 경우 사교육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나, 그 결과는 일관되지 않는다. 우선 Sawada와 Kobayashi(1986)는 일본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들의 수학적성취도에 미치는 사교육 효과를 검증한 결과 학원에서 사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수학적성취도가 사교육 경험이 없는 학생들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터키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교육 경험이 학업성적과 대학진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Tansel과 Bircan(2006)에 의하면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학업성적도 높고 대학진학률도 높았다. 한편 사교육 유형 중 개인과외에 초점을 맞추어 홍콩 중학생의 사교육 효과를 분석한 Zhan 등(Zhan, Bray, Wang, Lykins, & Kwo, 2013)의 연구결과 개인과외가 학교시험 준비에 긍정적인 효과

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Fergany(1994)는 이집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교육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결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으며 Xue와 Ding(2009)의 연구에서는 오히려 사교육 경험과 학업성취도 간의 부정적인 관계가 제시되었다.

국내의 경우 사교육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선행연구의 결과 또한 일관되지 않는다. Lim과 Chung(2013) 및 Kim(2007)은 사교육 경험이 중학교 및 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수능성적, 대학진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반면 오히려 사교육 경험이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Kim, 2005)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들(Hahn et al, 2001; Kim, 2007)도 있다.

특히 Do 등(Do, Kim, Kim, & Son, 2012)의 연구결과 다른 교과목에 비해 영어와 수학 교과목에서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높을 경우 우수한 성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im(2007)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교육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주로 고등학교 이전에 나타나며 중학교 2학년 때 그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됨으로써 사교육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가 교과 및 학교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시사되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업성취도에 대한 사교육의 영향이 일관되지 않은 점에 대해 몇몇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연구의 표본특성 및 사교육의 측정기준(사교육 경험 유무·시간·비용), 학업성취도 측정과목 수(예: 한 개의 교과목 또는 한 개 이상의 교과목), 사교육 유형 및 질에 따라 연구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Zhan et al, 2013). 또한 Shin 등(2010)에 의하면 사교육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학생의 동기 및 과목에 따라 달라지며 사교육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는 학습자 및 환경적 요인이 결합될 때, 더 크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적절한 관리 및 감독과 학습자의 학습동기 및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을 때, 사교육의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사교육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는 학교급에 따라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해서 지속적으로 탐색하며 학업성취도에 미

치는 여러 변인을 함께 고려하여 사교육의 효과를 다각적으로 규명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 사교육 및 부모의 양육방식, 학습자 변인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부모의 사교육비를 통한 경제적 지원의 효과는 Becker(1993)의 투자이론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투자이론에 의하면 가정의 경제적 자원이 많을수록 사교육 및 올바른 교육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자녀의 높은 학업성취도를 야기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 달리 Coleman(1988)은 자녀의 높은 학업성취도에 있어 가정의 경제적 자원 보다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 및 시간적 투자 등의 사회적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모의 사회적·심리적 지원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의 경제적·사회적 자원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탐색한 연구들(Jang, 2005; Kim, 2007; Shin et al., 2010)이 누적되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족의 경제적 자원은 사회적 자원과 결합됨으로써 또는 사회적 자원만으로도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hin 등(2010)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학업관리 및 사교육비 수준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부모의 학업관리 수준이 높은 경우 사교육비 수준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사교육 영향을 부모의 학업관리가 조절하였다. 반면 부모의 교육수준 및 경제적 자원보다 부모의 양육방식 및 관심 등이 자녀의 학업성취도를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제시한 연구들도 있다. 예를 들어 몇몇 연구자들(Chang & Sohn, 2005; Kim, 2004; Kim, 2007; Park & Kim, 2003)은 부모의 교육수준 및 직업, 사교육비 수준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으나,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 등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비교

적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자녀와 의사소통 및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습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잘할수록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한편 자녀의 특성 또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며 사교육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학습자의 학습가치와 학습에 대한 기본적인 능력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습가치는 학습자가 학교와 학습과제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심리적 경향을 의미하며 학습의 동기, 의욕, 목적의식을 포괄한 개념이다(Kim, 2005). 학습에 대한 기본적인 능력은 주의집중력, 자기통제력, 효율적인 학습방법 등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다(Heo, Lee, Hwang, & Kim, 2010). 학업에 대한 기본 능력 중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자기 주도성과 통제력을 포괄한 개념으로 학업성취도의 개인차를 유발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되고 있다(Zimmerman & Martinez-Ponz, 1990). 긍정적인 학습가치와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이 선행연구들(Grolnick & Slowiaczek, 1994; Kim & Kim, 2009)을 통해 보고되었는데, 구체적으로 학습에 부여하는 가치 및 자기조절학습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는 높았다.

또한 몇몇 연구(Jang, 2005; Kim, 2007; Shin et al., 2010)를 통해서 학습동기 및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사교육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ang(2005)의 연구에 의하면 학습자 스스로 사교육을 원해서 선택한 경우 부모의 압력에 의해서 사교육을 수강하는 경우에 비해 학습동기 수준 및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은 학생의 경우 학습을 관리하며 부모의 지원을 자신의 학업자원으로 잘 활용함으로써(Zimmerman, 2000), 사교육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할 수 있다.

4. 자녀의 성별에 따라 사교육 및 부모의 양육방식, 학습자 변인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자녀의 성별에 따라 사교육 및 부모의 양육방식, 학습자 변인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연구경향을 제시하기 전, 우선 자녀의 성별에 따른 교육적 투자 및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설명하는 이론적 토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정의 교육적 투자 및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있어 성별 차이를 제시한 이론으로 부의 극대화 가설(the wealth maximization hypothesis), 합리적 행위이론(the rational action theory), 교육에 의한 평등주의 가설(the education-induced egalitarianism hypothesis)을 들 수 있다.

우선 부의 극대화 가설에 의하면 경제적 관점을 토대로 자녀교육을 위해 가족자원을 배분할 때, 부모는 효율성을 고려한다. 즉, 노동시장이 남성에게 유리한 구조일 경우 아들에 대한 교육투자 수익률이 높으므로 아들 교육에 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한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에서 자녀의 교육투자 및 학업성취도에 있어 성별 차이는 감소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성별차이의 감소 폭은 계층별로 차이가 존재하는데,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중류층이 먼저 교육투자 대비 수익률이 감소됨을 빠르게 인식함으로써 자녀의 성별에 따라 교육적 투자의 차이를 두지 않는 반면 하류층의 경우 중류층 보다 교육적 투자의 성별차이의 감소 폭이 더딘 경향이 있다(Chang, 2004, 2006).

합리적 행위이론 또한 교육적 투자의 수익률을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부의 극대화 가설과 유사하다(Jonsson, 1999). 즉, 모든 부모는 교육을 통해 자신의 계급과 동일하거나 그 보다 높은 계급적 지위를 획득하기를 원하는데, 이러한 경향은 하류층 계층보다 중류층 이상의 계층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Goldthorpe, 2000).

한편 교육에 의한 평등주의 가설은 앞서 언급한 두 이론에 비해 교육을 통한 자아실현, 자기만족 등의 내재적 가치를 강조한다(Jacobs, 1996). 교육에 대한 내재적 가치는 부모의 교육적 수준과 관련된다. 즉, 고학력 부모는 저학력 부모에 비해 교육의 내재적 가치에 더 많이 중요성

을 부여함에 따라 자녀교육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함과 동시에 성 평등주의적 태도를 더 많이 가지므로(Buchman, Thomas, & Troy, 2003), 딸 교육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려는 경향이 있다(Chang, 2006, 재인용).

이러한 이론적 접근을 토대로 부모의 교육수준 및 취업 여부, 가족의 소득 및 사교육비, 가족관계 등 다양한 변인들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분석한 연구(Kim, 2007; Kim & Lee, 2006)들이 수행되어져 왔다. 우선 Kim과 Lee(2006)는 우리나라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적과 관련된 가족환경 변인을 탐색한 결과, 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라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녀 고등학생 모두 부모와의 대화빈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가구소득이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친 반면 여자 고등학생의 경우 어머니의 학력과 취업여부가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학업성적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여자 고등학생의 경우 어머니의 높은 학력과 미취업상태가 학업성적에 독립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어머니가 고학력이면서 미취업상태인 경우 학업성적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어머니의 학력과 취업상태의 상호작용 효과가 제시되었다. 또한 남녀 고등학생 모두 사교육비 수준은 학업성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Kim과 Lee(2006)의 연구결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아버지의 학력, 사교육비, 부모의 관심이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친 반면 여학생의 경우 자신에 대한 평가, 아버지의 지위, 사교육비, 부모의 관심이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아버지의 학력 및 부모의 관심수준, 사교육비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높았던 반면 여자 고등학생의 경우 자신에 대한 만족도 및 사교육비, 부모의 관심 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일수록 학업성적이 높았다. 특히 남녀 고등학생 모두 사교육비 투자가 있고 부모의 관심도가 높은 경우 학업성적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사교육비와 부모의 관심도 간의 상호복합적인 영향력이 규명되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에서 2010년에 실시한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 Child Youth Panel Surveys: KCYPS)에 참여한 중학교 1학년 패널의 3차년도 자료에 포함된 학생 중 영어와 수학 사교육 경험이 있는 남녀 학생 1,123명과 그 부모이었다.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2010년부터 자료수집이 시작되어 현재 3차년도 자료(2010~2012년)가 발표되었으며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패널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중학교 1학년 패널이 중학교 3학년(총 2,351명)이 되었을 때 측정된 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학원, 개인·그룹과외, 인터넷, 방문수업 등을 통해 영어와 수학 사교육 경험이 모두 있는 남녀 학생 1,123명을 추출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선정된 변인 측정 시, 부모의 감독과 애정의 경우 1차년도 자료를, 그 외 독립변인인 월평균 사교육비, 중학생의 학습가치, 자기조절학습능력의 경우 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부모의 감독과 애정을 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측정된 이유는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경우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과 환경변인 중 연령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 속성을 보이는 부모 양육방식 등과 같은 변인들을 2~3년 주기별로 측정하므로 중학교 1학년 패널의 부모 양육방식은 1차년도 단 1회에 한해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우선 본 연구대상 중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은 각각 53.6%와 46.4%로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월 평균 가족수입은 3,903,863원으로 150만원 초과에서 400만원 이하인 경우 60.6%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본 연구대상의 가족배경을 알아본 결과, 양부모 가족이 대부분(93.2%)이었으며 아버지 최종학력의 경우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이 50.7%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49.1%로 가장 많았다.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middle-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n=1,123)

Category	Frequency(%)
Middle-school students' sex	Male 601 (53.6)
	Female 521 (46.4)
	Totals 1,122 (100.0)
Family income per month	1,500,000 won or under 44 (4.1)
	more than 1,500,000 won - 3,000,000 won or under 275 (25.7)
	more than 3,000,000 won - 4,000,000 won or under 374 (34.9)
	more than 4,000,000 won 379 (35.4)
	Totals 1,072 (100.0)
Family composition	Two-parent families 1,017 (93.2)
	Single-parent families 74 (6.8)
	Totals 1,091 (100.0)
Fathers' highest level of education	Middle school graduation or under 25 (2.4)
	High school graduation 386 (36.7)
	College graduation 107 (10.2)
	University graduation 471 (44.8)
	Graduate school graduation 62 (5.9)
	Totals 1,051 (100.0)
Mothers' highest level of education	Middle school graduation or under 24 (2.3)
	High school graduation 518 (49.1)
	College graduation 116 (11.0)
	University graduation 375 (35.6)
	Graduate school graduation 21 (2.0)
	Totals 1,054 (100.0)

한편 중학교 자녀의 성별에 따라 월평균 가족수입, 가족구조, 부모 최종학력 등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추가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선정된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사용된 도구는 다음과 같다.

1) 영어·수학 학업성취도

본 연구에서 종속변인으로 선정된 중학교 자녀의 영어·수학의 학업성취도는 영어 및 수학성적의 평균점수를 토대로 측정되었다. 우선 영어 및 수학점수는 각 과목의 점수에 대해 96점이상, 95-90점, 89-85점, 84-80점, 79-75점, 74-70점, 69-65점, 64점이하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1~

8점을 부여한 척도에 대해 중학교 자녀 스스로 척도에 응답하는 형태로 평가되었다. 채점 시, 영어 및 수학점수 척도는 역채점을 실시하였으며, 2개 과목의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영어와 수학과목의 학업성취도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영어·수학 학업성취도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1점에서 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영어·수학 학업성취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 월평균 가구소득

본 연구에서 통제변인으로 지정된 월평균 가구소득은 패널조사에 참여한 부모가 기입한 연간 총 가구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적용하였다.

3) 부모의 학력

본 연구에서 통제변인으로 지정된 부모학력의 경우 패널조사에 참여한 부모가 조사지에 제시된 최종학력 범주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4년제 대학교졸, 대학원졸)에 직접 표기하는 방법으로 측정되었다.

4) 월평균 사교육비

연구대상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본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중학교 자녀의 부모 중 패널조사에 참여한 부모가 연구대상 자녀에게 지출되는 월평균 사교육비(영어, 수학)를 직접 기입하는 형태로 측정되었다.

5) 부모의 감독·애정 양육방식

부모의 감독·애정 양육방식은 Huh(1999)가 제작한 부모양육태도 검사의 감독(3문항), 애정(4문항) 하위척도에 대해 중학교 자녀가 응답하는 형태로 측정되었다. 모든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않다’(4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되며 감독 및 애정척도 모든 문항에 대해 역채점을 수행하였다. 각 척도별 점수범위는 감독 척도의 경우 3~12점, 애정 척도의 경우 4~1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가 부모의 감독 및 애정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척도별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감독 .76, 애정 .83이었다.

6) 중학교 자녀의 학습가치

중학교 자녀가 지각하는 학습가치는 학습을 가치있게 여기며 유용하게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Yang(2000)과 Kim(2006)이 개발한 척도 중 학습가치 하위척도(7문항)를 사용하여 자기보고식 형태로 측정되었다. 학습가치 척도의 경우 ‘학교 공부는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내가 살아가는데 유용할 것이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않다’(4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되며 학습가치 척도 모든 문항에 대해 역채점을 수행하였다. 학습가치 점수범위는 7~2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학습가치 척도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70

이었다.

7) 중학교 자녀의 자기조절학습능력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학습자가 자신의 감정, 인지, 행동을 통제하여 주도적으로 학습을 수행하는 능력으로 Yang(2000)과 Kim(2006)이 개발한 자기조절학습능력 하위척도(5문항)를 사용하여 중학교 자녀가 스스로 보고하는 형태로 측정되었다. 자기조절학습능력 척도는 ‘나는 공부에 지루하고 재미없더라도 끝까지 다한다’, ‘나는 노는 것을 그만두지 못해 공부를 시작하기 어렵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않다’(4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되며 일부 문항에 대해 역채점을 수행하였다.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점수범위는 5~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기조절학습능력 척도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88이었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연구대상의 배경과 측정변인의 기술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연구문제 1을 분석하기 위해 중학생의 성별로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2에 대해,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영어·수학 학업성취도를 종속변인으로 지정하여 월평균 사교육비, 부모의 감독·애정, 자녀의 학습가치, 자기조절학습능력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할 때,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하고자 통제변인으로 선정된 월평균 가구소득, 부모의 학력을 1단계에 투입하였다. 이 때, 부모의 학력은 명목변인이므로 각각 더미변인(dummy variables)으로 처리하였다. 부모 학력의 경우 부모 모두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기준변수(0점)로 설정하였으며 고등학교 졸업(1점), 전문대 졸업(2

점), 4년제 대학졸업 이상(대학원 졸업 포함)(3점)을 비교 범주로 지정하였다. 그 후, 2단계에서는 본 연구의 독립변인(월평균 사교육비, 부모의 감독·애정, 자녀의 학습가치, 자기조절학습능력)을, 3단계에서는 사교육비가 자녀의 영어·수학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의 감독·애정 양육방식과 자녀의 학습가치,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조절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월평균 사교육비와 생성한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였다. 또한 회귀분석 3단계에서 상호작용 항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 절차를 적용하였다.

특히 연구문제 1, 2 분석 시, 월평균 가구소득과 사교육비는 학업성취도에 비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로그(logarithm)로 변환된 변수를 사용하였다(Kim, 2007; Shin et al., 2007).

IV. 결과 및 고찰

본 연구결과를 연구문제 순으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사교육비 및 감독·애정, 자녀의 학습가치 및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영어·수학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본 연구대상인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영어·수학 학업성취도와 부모의 사교육비, 감독·애정, 자녀의 학습가치 및 자기조절학습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2>,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남자 중학생의 경우(<Table 2> 참조), 부모의 월평균 사교육비 수준, 부모의 감독, 자녀의 학습가치 및 자기조절학습능력은 모두 남자 중학생의 영어·수학 학업성취도와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월평균

사교육비 수준이 높을수록($r=.14, p<.01$), 부모의 감독수준이 높을수록($r=.18, p<.01$), 남자 중학생이 학습에 대해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정도가 높을수록($r=.32, p<.01$), 남자 중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 수준이 높을수록($r=.34, p<.01$) 영어·수학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여자 중학생의 경우(<Table 3> 참조) 유사한 결과가 제시되었는데, 월평균 사교육비 수준, 부모의 감독, 자녀의 학습가치, 자기조절학습능력 모두 영어·수학 학업성취도와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월평균 사교육비 수준이 높을수록($r=.21, p<.01$), 부모의 감독수준이 높을수록($r=.15, p<.01$), 여자 중학생이 학습에 대해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정도가 높을수록($r=.24, p<.01$), 여자 중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 수준이 높을수록($r=.34, p<.01$) 영어·수학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학생의 성별과 상관없이 부모의 월평균 사교육비 및 부모의 감독수준이 높을수록, 학습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 및 자기조절학습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영어·수학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부모의 사교육비 지출정도, 부모의 감독 및 자기조절학습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난 Shin 등(2010), Do 등(2012), Lim과 Chung(2013), Yang과 Lee(2012), Lee(2012)의 연구결과와 일관된다.

그 밖에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의 평균을 살펴본 결과, 남녀 중학생의 영어·수학 학업성취도는 각각 4.58, 4.57로 가능한 점수범위(1~8점)를 고려해 볼 때, 중간수준에 해당하는 4점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남녀 중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로그값)는 각각 12.81과 12.82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로그값을 취하기 전 월평균 사교육비는 남자 중학생의 경우 411,879원, 여자 중학생의 경우 418,828원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감독과 애정 양육방식의 경우 남녀 중학생 모두 3.02~3.26점의 점수범위에 해당됨으로써 가능한 점수범위(1~4점)를 고려해 볼 때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남녀 중학생의 학습가치의 경우 각각 2.93, 2.96으로 자기조절학습능력(남자 중학생: 2.52, 여자 중학생: 2.45)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한편 중학교 자녀의 성별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선정된

Table 2. The means, standard deviation of variables and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variables: Middle-school boys(n=601)

Variables	(1)	(2)	(3)	(4)	(5)	(6)
(1) English · Math academic achievement	1.00					
(2) Private tutoring expenses per month(log)	.14**	1.00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3) Monitoring	.18**	.03	1.00			
(4) Affection	.08	.04	.35**	1.00		
Middle -school boys' learning-related variables						
(5) Learning value	.32**	.05	.15**	.18**	1.00	
(6)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ies	.34**	.06	.18**	.14**	.46**	1.00
M(SD)	4.58(2.30)	12.81(0.51)	3.19(0.62)	3.04(0.63)	2.93(0.60)	2.52(0.48)

** p < .01

Table 3. The means, standard deviation of variables and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variables: Middle-school girls(n=521)

Variables	(1)	(2)	(3)	(4)	(5)	(6)
(1) English · Math academic achievement	1.00					
(2) Private tutoring expenses per month(log)	.21**	1.00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3) Monitoring	.15**	.11*	1.00			
(4) Affection	.05	.01	.46**	1.00		
Middle -school girls' learning-related variables						
(5) Learning value	.24**	.05	.14**	.12**	1.00	
(6)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ies	.34**	.05	.23**	.15**	.41**	1.00
M(SD)	4.57(2.34)	12.82(0.52)	3.26(0.61)	3.02(0.63)	2.96(0.53)	2.45(0.49)

** p < .01, * p < .05

변인의 평균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알아본 결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제외한 다른 변인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남자 중학생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33, p<.05$).

2.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사교육비 및 감독·애정, 자녀의 학습가치 및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영어·수학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문제 2에서 제시된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사교육비 및 감독·애정, 중학생의 학습가치 및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영어·수학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영어·수학 학업성취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남자 중학생의 경우(<Table 4> 참조), 1단계에 통제변인으로 투입된 월평균 가구소득 및 부모의 학력 중 월평균 가구소득($\beta=.12$)이 남자 중학생의 영어·수학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남자 중학생의 영어·수학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2단계에 투입된 변인 중 부모의 감독($\beta=.10$), 남자 중학생의 학습가치($\beta=.18$), 자기조절학습능력($\beta=.21$)은 월평균 가구소득 및 부모의 학력을 통제된 이후에도 남자 중학생의 영어·수학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감독수준이 높을수록, 남자 중학생이 학습에 대해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자기조절학습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영어·수학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특히 남자 중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학습가치가 부모의 감독에 비해 영어·수학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의 감독·애정 양육방식, 중학생의 학습가치 및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남자 중학생의 영어·수학 학업성취도에 대한 사교육비의 영향을 조절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부모의 사

Table 4. The hierarchical regressions of middle-school boys' academic achievement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English · Math academic achievement		
		1st step β	2nd step β	3rd step β
Family income per month(log)		.12**	.10*	.10*
	High · Middle school graduation	-.05	-.04	-.05
	College · Middle school graduation	.04	-.01	-.03
	University/Graduate · Middle school graduation	.02	-.01	-.02
	High · Middle school graduation	.03	-.11	-.12
Fathers' education	College · Middle school graduation	.05	-.03	-.03
	University/Graduate · Middle school graduation	.18	.03	.01
Mothers' education	Private tutoring expenses per month(log) (A)		.08	.09
	Parents' monitoring(B)		.10*	.10*
	Parents' affection(C)		-.04	-.04
	Middle-school boys' learning value(D)		.18***	.19***
	Middle-school boys'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ies (E)		.21***	.21***
	A x B			-.03
	A x C			-.03
	A x D			.04
	A x E			-.04
	ΔR^2		.13***	.00
	R^2	.07***	.20***	.20***
	F	5.47***	10.82***	8.21***

p < .05, ** p < .01, *** p < .001

교육비와 감독 · 애정 양육방식, 중학생의 학습가치 및 자기조절학습능력 간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경우 추가 설명량이 통계적으로 의미있지 않았다. 회귀방정식에 투입된 변인들은 남자 중학생의 영어 · 수학 학업성취도 변량의 총 20%를 설명해 주었다.

여자 중학생의 경우(<Table 5> 참조), 1단계에 통제변인으로 투입된 월평균 가구소득 및 부모의 학력 중 월평균 가구소득($\beta=.17$)이 여자 중학생의 영어 · 수학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여자 중학생의 영어 · 수학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2단계에 투입된 변인 중 부모의 사교육비($\beta=.15$)와 여자 중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beta=.31$)은 월평균 가구소득 및 부모의 학력을 통제 한 이후에도 여자 중학생의 영어 · 수학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월평균 사교육비 수준이 높을수록, 여자 중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영어 · 수학 학업성취도가 높았으며 남자 중학생과 동일하게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영어 · 수학 학업성취도를 가장 잘 예측하였다. 한편 부모의 감독 · 애정 양육방식, 학습가치 및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여자 중학생의 영어 · 수학 학업성취도에 대한 사교육비의 영향을 조절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부모의 사교육비와 감독 · 애정 양육방식, 중학생의 학습가치 및 자기조절학습능력 간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경우 추가 설명량이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나타나지 않았다. 회귀방정식에 투입된 변인들은 여자 중학생의 영어 · 수학 학업성취도 변량의 총 22%를 설명해 주었다.

이상에서 제시한 연구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해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단계에 통제변인으로 투입된 월평균 가구소득과 부모의 학력 중 월평균 가구소득만이 남녀 중학생의 영어 · 수학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Table 5. The hierarchical regressions of middle-school girls' academic achievement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English · Math academic achievement		
		1st step β	2nd step β	3rd step β
Family income per month(log)		.17**	.17**	.17**
	High · Middle school graduation	-.21	-.19	-.17
Fathers' education	College · Middle school graduation	-.06	-.03	-.03
	University/Graduate · Middle school graduation	-.12	-.12	-.11
Mothers' education	High · Middle school graduation	.26	.23	.24
	College · Middle school graduation	.16	.17	.16
	University/Graduate · Middle school graduation	.33	.27	.26
Private tutoring expenses per month(log) (A)			.15**	.15**
Parents' monitoring(B)			.06	.06
Parents' affection(C)			-.07	-.07
Middle-school girls' learning value(D)			.08	.08
Middle-school girls'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ies (E)			.31***	.31***
A x B				.03
A x C				.02
A x D				-.00
A x E				.02
ΔR^2			.15***	.00
R^2		.07***	.22***	.22***
F		4.59***	10.03***	7.56***

** $p < .01$, *** $p < .001$

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남녀 중학생의 영어·수학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영어와 수학 성적이 우수한 학생일수록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것으로 제시된 Do 등(2012)의 연구결과와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여자 중학생의 학업성적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Kim과 Lee(2006)의 연구결과를 지지해 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른 변인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의 소득수준 자체로도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가정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우수한 교재, 자료 및 학습 환경을 제공하거나 사교육비 투자를 통해서 자녀의 학업에 대한 긍정적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1단계의 투입된 월평균 가구소득과 부모의 학력을 통계

한 후, 부모의 사교육비 및 감독·애정, 중학생의 학습가치와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도 출되었다. 구체적으로 남자 중학생의 경우 부모의 감독과 학습가치 및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영어·수학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된 반면 여자 중학생의 경우 월평균 사교육비,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영어·수학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녀 중학생 모두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영어·수학 학업성취도를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으로 제시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사교육비 및 부모의 학업관리 보다 중학생의 수학성취도를 가장 잘 예측하는 주 요인으로 제시된 Shin 등(2010)의 연구결과를 지지해 준다. Zimmerman과 Martinez-Ponz(1988)에 의하면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학업성취도에 있어 개인차를 유발하는 주요한 요

인으로, 학업성취도 전체 변량의 80%를 설명할 수 있다 (Yang & Lee,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 투입된 사교육비, 부모의 감독·애정 양육방식, 학습가치에 비해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남녀 중학생의 영어·수학 학업성취도를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제시된 결과는 Zimmerman과 Martinez-Ponz(1988)의 주장과 일관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남학생에 한해 학습가치 또한 영어·수학 학업성취도를 주요하게 예측하는 학습자 관련 변인으로 제시되었다. 일반적으로 학습자가 학습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할수록 학습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학습과정에 필요한 학습전략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Garcia & Pintrich, 1996). 특히 본 연구에서 남학생의 경우에서만이 학습가치가 영어·수학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제시된 점은 Ahn(2003)의 연구결과를 통해 일부 설명될 수 있다. Ahn(2003)은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성취목표지향성과 내적 동기가 과제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에 비해 내적동기가 과제수행을 예측하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내적동기는 과제수행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 및 과제에 대한 흥미, 과제 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로 인해 행동을 수행하게 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Ahn, 2003), 학습에서 오는 가치 및 학습의 유용성 등의 개념을 포함하는 본 연구의 학습가치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남자 중학생의 경우 학습에 대한 가치를 높게 인식할수록 그 과제에 몰입하는 정도가 높으며 결과적으로 학업성취도가 높아진 것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한편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가정의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남자 중학생의 경우 부모의 감독이, 여자 중학생의 경우 월평균 사교육비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 중학생의 경우 부모의 감독수준이 높을수록 영어·수학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사교육비는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 고등학생 모두 사교육비 수준이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대화빈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적

이 좋은 것으로 나타난 Kim과 Lee(2006)의 연구결과를 일부 지지해 준다. 반면 여자 중학생의 경우 월평균 사교육비 수준이 높을수록 영어·수학 학업성취도가 높았으며 부모의 감독 및 애정은 영어·수학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 고등학생의 경우 모두 사교육비 수준은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부모와의 대화빈도가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제시된 Kim과 Lee(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부모의 관심 및 사교육비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Kim(2007)의 연구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결과 간의 불일치한 점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계층과 상관없이 아들에게 교육적 투자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여성의 경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딸에게 교육적 투자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Chang, 2004). 따라서 계층과 상관없이 아들에 대한 높은 교육적 투자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딸은 자신의 학업에 대한 부모의 사교육비 투자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지원의 의미에 내포된 자신의 학업에 대한 부모의 높은 기대를 민감하게 인식할 수 있다. 특히 여아는 남아에 비해 대인관계에 대한 민감성과 순응이 조장되는 사회화 과정으로 인해(Song, 1995) 딸은 사교육비 지출을 통한 학업성취도에 대한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교육비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와 대상이 여자 중학생인 반면 선행연구(Kim, 2007; Kim & Lee, 2006)의 대상은 여자 고등학생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는 대학진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단순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 외, 부모의 감독 및 대화 등의 심리적 지원이 더 필요한 시기이므로 Kim과 Lee(2006), Kim(2007)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대화 등의 심리적 측면이 여자 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부각된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몇몇 선행연구들(Kim, 2007; Shin et al., 2010)의 결과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남녀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부모의 사교육비가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부

모의 감독·애정 양육방식 및 중학생의 학습가치,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결과 간의 불일치는 사교육 및 학업성취도 측정 기준 및 연구대상 등의 연구방법의 차이에서 우선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Kim(2007)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교육비의 경우 사교육비 투자유무를 적용해 측정되었으며 학업성취도 역시 전체 학교등수를 적용하였다. 또한 Shin 등(2010)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학업성취도에 초점을 맞추어 사교육비가 수학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부모의 학업관리,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를 제시하였으나 월평균 가구소득 및 부모의 학력 등의 가외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방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향후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사교육비, 부모의 양육방식, 자녀의 학습관련 변인의 독립적·복합적 영향력은 다양한 연구방법의 적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탐색될 필요성이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남녀 중학교 학생의 영어·수학 학업성취도에 대한 부모의 사교육비 및 감독·애정, 자녀의 학습가치, 자기조절학습능력의 독립적·복합적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영어·수학 학업성취도와 부모의 사교육비, 감독·애정 양육방식, 자녀의 학습가치 및 자기조절학습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중학생의 성별과 상관없이 부모의 월평균 사교육비 및 부모의 감독수준이 높을수록, 학습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자기조절학습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영어·수학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둘째, 남녀 중학생 모두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영어·수학 학업성취도를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으로 제시된 반면 남자 중학생의 경우 학습가치 및 부모의 감독이, 여자 중학

생의 경우 월평균 사교육비가 영어·수학 학업성취도를 예측함으로써 성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남녀 중학생 모두 사교육비가 영어·수학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부모의 감독·애정 및 중학생의 학습가치,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는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부모의 감독, 월평균 사교육비, 자녀의 학습관련 변인(자기조절학습능력, 학습가치)의 독립적인 영향력만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중학생 자녀의 성별과 상관없이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영어·수학 학업성취도를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통해 주요 교과목의 성적향상을 위해 사교육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우리나라 교육현실에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학습자가 학습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동기 및 인지, 행동을 끊임없이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Synn & Lee, 2010)으로, 오랜시간 동안 주변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된다. 특히 자녀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양육방식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된다. Synn과 Lee(2010)는 부모가 자녀의 성적이나 문제해결력, 학교생활 등 교육과 관련한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학업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질수록 중학생 자녀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자녀의 높은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이 제시됨에 따라 자녀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의 발달에 있어 부모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편 중학생은 가정 외, 학교에서 생활을 많이 하게 된다. 학교는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주요한 예측변인으로 제시된 자기조절학습능력을 배양하고 학습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발달시키는데 주요한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중학교 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학습가치를 배양하는데 있어 ‘가정교과’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정교과’ 단원 중 ‘청소년의 자기관리’ 영역에서 시간관리하기, 스트레스 관리방법 등의 하위영역은 중학생이 동기 및 인지,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가정교과’ 내용은 자기조절학습능력 배양에 효과적이라고 제시된 실천적 문제중심 학습 및 협동학습 방법(Kim & Kim, 2000; Yu & Lee, 2013)의 적용이 용이하며, ‘가정교과’를 통해 생활과

연계된 진로개념에 근거해 진로교육을 수행 가능하므로 (Lee, 2012), 자연스럽게 청소년의 진로와 관련되어 학습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국 단위의 자료를 활용하여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은 영어와 수학과목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교육비, 부모의 감독·애정, 중학생의 학습가치 및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영향력을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영어·수학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 주요변인으로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제시된 점은 사교육 의존현상이 가열화되고 있는 현 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면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탐색한 횡단연구로, 향후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사교육경험이 있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교육 시간 등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및 학습자 변인의 복합적인 영향력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패널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영어·수학 학업성취도에 대해 객관적인 성적자료를 수집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학교를 통해 영어·수학 학업성적에 대한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연구결과와 타당성을 보다 더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중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데 자기조절학습능력과 학습가치가 주요한 학습자 변인으로 제시됨에 따라 ‘가정교과’ 수업이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능력과 학습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증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남녀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부모의 사교육비가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부모의 감독·애정 및 중학생의 학습가치,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에 대한 사교육비, 부모의 양육방식, 자녀의 학습관련 변인의 독립적·복합적 영향력이 다양한 연구방법의 적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탐색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 Ahn, S.H. (2003). The influence which university students' target-orientation of accomplishment exercise on the inner motive and performance of physical exerci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hw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Becker, G.S. (1993).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3rd Ed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ang, S.S. (2004). Class and gender differentials in educational attainment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ology*, 38(1), 51-75.
- Chang, S.S. (2006). Gender and class differentials in higher education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0(1), 127-156.
- Chang, S.S., & Sohn, B.S. (2005). The Effects of Family Background on Academic Achievement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ology*, 39(4), 198-230.
- Coleman, J.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 Do, S.L., Kim, S.S., Kim, H.C., & Son, S.K. (2012). Characteristics of high performing middle school students for private-tutoring.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0(4), 185-220.
- Fergany, N. (1994). *Survey of access to primary education and acquisition of basic literacy skills in three governorates in Egypt*. Cairo: UNICEF; Almishkat Centre for Research and Training.
- Garcia, T., & Pintrich, P. (1996). The effects of autonomy on motivation and performance in the college classroom.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12(4), 477-486.
- Goldthorpe, J.H. (2000). Outline of a theory of social mobility, pp.230-258 in his *On Sociology: Numbers, narratives, and the integration of research and the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rolnick, W.S., & Slowiaczek, M.L. (1994). Parents' involvement

- in children's schooling: A multidimensional conceptualization and motivational model. *Child Development*, 65, 237-252.
- Hahn, D.D., Sung, B.C., & Gil, I.J. (2001). A study on the comparison between the effects of private tutoring versus in-school education on academic achievement of high school students. *Sociology of Education*, 11(1), 33-54.
- Heo, J.W., Lee, D.H., Hwang, Y.W., & Kim, H.S. (2010). The effects of stress experienced from joining extracurricular activities after school on academic attitudes and study habit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Humanities Research*, 15(1), 195-212.
- Huh, M.Y. (1999). The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arenting Behavior Inventory' perceived by adolesc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hw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Jang, H.J. (2005). Effect of private education on learning motivation and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Jin, Y.J., & Kim, J.S. (2010). The effects of private education experiences and parent's achievement pressure affect the learning attitude of children. *Korean Journal of Parent Education*, 7(2), 5-22.
- Jonsson, J.O. (1999). Explaining sex differences in educational choice: An empirical assessment of a rational choice model.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5, 391-404.
- Joongboo Daily News (2013). Edu-poor: The review of edu-poor generation. Retrieved April, 16th, 2014 from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894236>
- Kim, H.J. (2007). Effects of family background and socio-cultural resources on the academic performance.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1(6), 171-203.
- Kim, H.J., & Lee, B.H. (2006). Impact factors of familial background on academic achievement of high school student. *Journal of Korean Social Trend and Perspective*, 56, 138-161.
- Kim, J.B., & Kim, J.Y. (2009). A longitudinal analysis of relationships among parental expectation, involvement, and children's psychological stress mediated by learning outcomes and academic self-concept.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3(2), 389-412.
- Kim, J.Y. (2007). Time allocation and the academic achievement of high school graduates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34(4), 57-78.
- Kim, K.H. (2004). The impact of family background on educational continuation across school transition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38(5), 109-142.
- Kim, K.H. (2007). *A longitudinal analysis of adolescents' private education and its effects*.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research report.
- Kim, K.O., & Kim, M.C. (2000). The effect of cooperative learning method on learning accomplishment and attitude of Home Economic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2(3), 171-181.
- Kim, K.S.(2003). The effect of private lessons on academic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13(3), 21-41.
- Kim, K.S., & Lee, H.C. (2011). The effectiveness of shadow education on CSAT. *The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32(2), 35-49.
- Kim, T.I. (2005). The effect of private tutoring during high school years on the academic performance of college year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3(3), 29-56.
- Kookje News (2014). The impracticalities of prerequisite learning prohibition law. Retrieved August 11th, 2014 from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800&key=20140812.22026200246>.
- Lee, S.H. (2012). An Exploratory Study on the Life Career Education in Home Economics Education across the life spa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4(3), 123-142.
- Lee, S.J. (2012). The relationship of academic self-efficacy, task value, achievement goal, academic efforts and

- cognitive strategies to English academic achievement betwee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0(4), 103-124.
- Lim, E.S., & Chung, Y.K. (2013).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education expenses and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Focused on English sec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6), 2660-2666.
- Ministry of Education (2014). The survey report of private education expenses.
- Naver Wikipedia (2014). Private tutoring. Retrieved June, 11th, 2014 from <http://ko.wikipedia.org/wiki/%EC%82%AC%EA%B5%90%EC%9C%A1>.
- Park, Y.S., & Kim, U.C. (2003). The influence of parent-child relationship on achievement motiv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among Korean adolescents: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0(1), 139-165.
- Phang, H.N., & Kim, K.H. (2002). Opportunity and inequality: Educational stratification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ology*, 36(4), 193-222.
- Sawada, T. & Kobayashi, S. (1986).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arithmetic and mathematics education at juku*. Translated with an afterward by Horvath, P.; Compendium 12, Tokyo: National Institute for Educational Research.
- Shin, J.H., Hwang, H.Y., & Seo, E.J. (2010). The effect of private tutoring on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Moderating effect of parental involvement and students' self-regulation. *Asian Journal of Education*, 11(4), 249-264.
- Shin, J.H., Shin, T.S., & Kwon, H.K. (2004). Types of attribution on academic excellenc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8(4), 261-277.
- Song, J.E., Jon, D.I., Soek, J.H., Hong, N.R., Kim, Y.S., & Hong, H.J. (2010). Gender differences of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ccording to the extracurricular education. *Journal of Korea Academy of Child-Adolescence Psychiatry*, 21, 37-44.
- Song, M.J. (1995). *Developmental psychology*. Seoul: Hakjisa.
- Synn, M.H., & Lee, H.W.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Home Environment and Self-Regulated Learning: The Case of Middle-School Students in South Korea. *Asian Journal of Education*, 11(2), 113-134.
- Tansel, A., & Bircan, E. (2007). *Private supplementary tutoring in Turkey: Recent evidence on its various aspects*. Working Papers, Turkish Economics Association.
- Xue, H., & Ding, Y.Q. (2009). A positivistic study on the private tutoring of students in urban China. *Journal of Youth Studies(Hong Kong)*, 12(1), 115-128.
- Yang, M. H. (2000). The study on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elf-regulated learning mode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Yang, M.H., & Lee, K.A. (2012). A longitudinal analysis of relationships between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Journal of Education*, 43(2), 175-195.
- Yonhap News. (2013). Monthly average private expenses of 239,000won per student – Increasing in four years. Retrieved April, 16th, 2014 fr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051059>.
- Yu, J.H., & Lee, Y.S. (2013). Development of Practical Problem Based Teaching-Learning Plans and Evaluation of Its Effectiveness on Middle School Students' Self Efficacy, Ego Resilience and Happiness : Focused on the Unit 'Youth's self Management' in Middle School Technology · Home Economic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5(4), 79-98.
- Zhan, S., Bray, M, Wang, D., Lykins, C., & Kwo, O. (2013). The effectiveness of private tutoring: Students' perceptions in comparison with mainstream schooling in Hong Kong.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14, 495-509.
- Zimmerman, B.J. (2000). Attaining self-regulation: A social cognitive perspective. In M. Boekaerts, P.R. Pintrich, & M. Zeidner (Eds.), *Handbook of self-regulation* (pp.13-39). San Diego: Academic Press.

Zimmerman, B. J., & Martinez-Ponz, M. (1988). Construct validation of a strategy model student self-regulated learn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0*(3), 284-290.

Zimmerman, B. J., & Martinez-Ponz, M. (1990). Student differences in self-regulated learning: Relating grade, sex, and giftedness to self-efficacy and strategy us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 51-59.

<국문요약>

본 연구는 남녀 중학생의 영어·수학 학업성취도에 대한 부모의 사교육비 및 감독·애정, 자녀의 학습가치,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에 참여한 중학교 3학년 자료를 활용하여 수집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은 과목이 수학과 영어라는 현실을 고려하여 수학과 영어과목의 사교육 경험이 있는 중학생 1,123명과 그 부모가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조사도구는 영어·수학 학업성취도, 월평균 사교육비, 부모의 감독·애정, 중학교 자녀의 학습가치, 중학교 자녀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자기기입식 설문지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성별과 상관없이 부모의 월평균 사교육비 수준과 부모의 감독수준이 높을수록, 중학생이 학습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정도와 자기조절학습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영어·수학 학업성취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남녀 중학생 모두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영어·수학 학업성취도를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으로 제시된 반면 그 밖에 남자 중학생의 경우 학습가치 및 부모 감독의 순으로, 여자 중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만이 영어·수학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녀 중학생 모두 사교육비가 영어·수학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부모의 감독·애정 및 중학생의 학습가치,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학생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부모 및 ‘가정교과’의 역할을 제안하였다.

■ 논문접수일자: 2014년 09월 17일, 논문심사일자: 2014년 09월 18일, 게재확정일자: 2014년 09월 26일